

STAR CRAFT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임스 와우

BILZARD
ENTERTAINMENT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임스 와우

저글링들이 이름서를 죽인 건 론데일 12 전투에서였다. 하지만 종족 전쟁 당시 외딴 구역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는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름서는 상급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였다. 앳된 얼굴에 활기가 가득한, 자치령 해병대에서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할 그런 부류였다. 18 살 나이에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법 전화기를 팔아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거나 방세를 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문을 두드린 곳은 자치령 해병 징집관인 로버트 모리 부사관의 집이었는데, 로버트는 이름서가 파는 물건 이외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3 일 후, 신병 훈련소가 있는 투락시스행 수송선에 탄 이름서의 머릿속에는 용감한 전투와 전설적인 여행, 영광스러운 훈장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저그와 싸우는 일은 들은 것과는 사뭇 달랐다. 어른들이 - 사실 대개는 소년들이었지만 - 눈앞에서 산 채로 난도질당하고, 갈갈이 찢기고, 입에서 뱀어져 나온 피가 마치 먹서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CMC 헬멧 안을 가득 채우는 광경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았다.

로 분대원들이 간이 병영 안에서 녹녹한 밤을 보내던 때, 이름서는 불법 전화기로 사진을 하나 내보이며,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차지할 여자"라고 말하곤 했다. 굵슬굵슬한 금발에 말로웨의 명품을 차려 입은 그 미녀의 이름은 메리 로우였고, 이름서가 모리 부사관을 만나기 며칠 전에 처음 만난 여자였다.

"무슨... 애송아, 그런 애가 너랑 어울릴 것 같아? 딱 봐도 상류층이잖아," 고참 해병인 버치가 놀렸다. "나처럼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둘은 전투 자극제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술집에서 처음 만났다.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얼씬도 못하는 장소였다. 걱정적인 밤이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쾌감 속에 단편적인 기억만 떠올랐다. 춤, 웃음, 스코티 볼저 위스키. 키스도 했었다. 아니, 그런 것 같았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 후에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지금까지 터무니 없는 가격의 행성간 문자를 주고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전방에 투입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이름서에게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꿈이 되었다. CMC 전투복을 벗게 될 날, 이제는 형제와 다름 없는 해병들이 그가 너무 "순진하다고" 놀려대는 일이 없을 날, 그가 더는 "꼬마"가 아니게 될 날에 대한 꿈이었다. 그녀는 저글링의 무리가 그에게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기 전 시절, 피와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되기 전의 시간들을 떠오르게 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경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할까.

"두고 보라고요." 그는 언제나 소박한 몽상가처럼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사진을 보고 있을 때면, 이름서는 항상 행복한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네, 두고 보세요."

저글링들이 이름서를 죽인 날도 전쟁터에서의 매일과 다르지 않았다. 병사들은 대부분 임무 대기 상태로 시간을 보낸다. 멍하니 앉아 울부짖던 바람이 고요히 잦아드는 소리를 들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의 고요함은 어두운 약속을 품고 있었다.

로 분대는 론데일 12 방어를 맡았다. 안셀름의 남쪽 반도에 있는 작은 통신 중계소였다. 일주일 전에 분대는 위성 장비 둘레에 깊은 참호를 파고, 주위에 병커를 건설하며 공성 전차 두 대를 배치했다. 기지는 획득한 정보를 구역 중심부에 있는 함대에게 송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병영도 건설되었지만 로 분대는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단지 몇 초만 위치를 이탈해도 저그의 습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휴먼지가 이는 참호가 그들의 막사이자 집이었다.

저그가 정말로 론데일을 공격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 장엄한 전쟁에서 론데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미비했다. 경보가 침묵을 찢었을 때, 로 분대의 부사관인 버질 케인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해병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적의 수는 적었다. 적은 수의 저글링들이 마치 자살이라도 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돌진해 왔다. 아무 의미 없는 공격이었다.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지적으로도 열등한 짐승들은 그저 기지를 향해 달려왔다.

놈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 키르룩거리는 소리는 아주 멀리에서부터 들렸다.

"왜 저러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고요?" 이름서도 이제 놈들을 볼 수 있었다. 스무 마리 남짓한 저글링들.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운 채, 입에서는 기분 나쁜 점액을 흘리며 달려드는 야수들. 튼튼한 다리로 지면을 박차고 달려오는 놈들은 마치 미친 돌연변이 개 같았다. 하지만 이름서는 저글링의 진짜 정체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극초음파 쉐기탄을 발사하는 소리가 공기를 뒤흔든다.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지금 당장.

저글링의 수는 정말 적었다. 하지만 놈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단 한 명의 테란이라도 죽일 수 있다면 열마리가 죽는대도 상관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제서야 로 분대는 참호를 파서 그곳에 주둔한 것이 화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몇몇 저글링들이 좁은 참호로 기어들어왔고 두터운 CMC 전투복을 입은 해병들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저글링들을 향한 총탄이 다른 해병을 관통했고, 임시변통이던 흙벽은 점차 허물어졌다.

저글링들의 공격을 받고, 이름서는 비명을 질렀다. 칼날과도 같은 발톱이 그의 헬멧을 뚫고 쇠골을 파고들었다. 또 다른 발톱이 이름서를 향해 내리 꽂혀, 마치 통조림을 따듯 그의 전투복을 갈랐다.

놈들이 모두 죽었을 때도 이름서는 살아있었다. 아직도 그는 왜 저글링들이 생존을 포기하고 습격을 감행했는지 알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저 몇 명의 해병을, 보잘것없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놈들이 왔을까? 이름서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졌다. 전투 자극제가 아직도 핏줄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고 심장의 박동은 점점 느려졌다. CMC 전투복의 안전장치는 난자당한 동맥을 봉합하려 했고, 버치는 이름서를 계속 흔들었다. 부사관 케인이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름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나직이 속삭였다. "메리 루."

어둠 속에서 버질 케인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전신에 진땀이 흐른 뒤라 그런지, 벌거벗은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버질!" 루피가 그의 팔을 붙잡고 폭신한 베개에 다시 누여 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내 사랑. 나 여기 있어요." 그녀는 그의 건장한 어깨에 얼굴을 비볐다. 그녀의 섬세한 금발 머리카락이 암석과도 같은 그의 근육을 따라 비단처럼 흘러내렸다. 버질은 숨을 가쁘게 들이쉬었다. 혈떡이는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렸다.

"젠장. 미, 미안해, 루... 내가..."

"쉬잇... 알아요, 버질. 다 알아요. 다 알아."

1 년 가까이 버질과 교제하면서 루피는 이런 일에 이제 익숙해졌다. 밤이 되면 버질은 악몽과도 같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와 약혼하면서 루피는 이 남자를 한껏 감싸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를 악몽에서 깨워 눈물을 닦아주며 체구와 힘에 어울리지 않게 여린 모습을 바라보는 일에도 이제 익숙해졌다. 자신이 이 남자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냥... 놈들이 돌아왔어, 루피. 믿어지지가 않아. 언젠가 이럴 줄은 알았지만... 남자도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

여자도 그렇다고요. 루피가 생각했다. "소집령에 응하지 않아도 돼요, 버질.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말했잖아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를 갔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 밤이면 모두 다 잊게 될 거라고요."

루피의 말에 대답하기 전에 버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종족 전쟁 때 자신이 저그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몇 달 동안 수없이 몰려드는 저글링들을 막아내며 버질은 살아남았다. 그의 삶에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한 일이었기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알아, 루. 알아. 그래도 걱정이 돼... 지금까지 난 도망을 쳐 본 적이 없어."

"아이 참, 당신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멍스크가 당신을 그렇게 부려먹었잖아요. 이번엔 새로 선발한 해병들도 많을 거예요. 황제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수술비를 댄 건 자치령이 아니라 우리 아빠라고요. 당신도 아빠한테 신세를 졌다는 거 알잖아요. 그 동안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버질? 친구를 몇 명이나 잃었고요?"

"이 일에 관해선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본 UNN 기사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다. 놈들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군대를 무참히 유린하며 저글링들은 티리아를 짓밟았다. 놈들의 이빨과 발톱, 그리고 습격할 때 내는 그 끔찍한 키르륵거리는 소리는 머리 속에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다.

"당신은 소집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버질. 전혀 없다고요. 당신은 전역했잖아요. 단지 새로운 위협이 있다고 자치령이 당신을 불러낼 권리는 없어요. 4년 전에 그곳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해요."

"안 돌아간다고 말했잖아, 루피... 안 돌아간다고."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매일 밤마다 불을 끄고 잠에 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조그마한 몸을 끌어안은 버질은 루피의 체온과 부드러움을 느끼며 안정을 되찾았다. 버질이 그녀를 놓아주자 루피는 버질의 목에서 배꼽까지 나있는 큼지막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그러다 스카렛 가죽 끈에 펜 저글링 이빨 목걸이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이거 싫어요. 침대까지 이 목걸이 하고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찢린단 말이에요... 어서 풀어요."

버질이 웃었다. "알았어, 풀고 올게." 그리고는 목걸이를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 놓았다.

"내일이면 우리 떠나요... 과거는 모두 버리고요. 나도 잃는 게 많다고요, 버질. 나도 새로 시작해야 해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아빠를 두고 말이에요."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어서 잠이나 자요, 이 덩치 큰 양반아!"

그녀가 돌아눕자 버질은 천장에 달린 선풍기를 바라보았다. 계속해서 돌고 도는 선풍기는 바깥에서 비쳐오는 노란 달빛을 머금은 어두운 벽에 칼날과도 같은 그림자를 남겼다. 그는 루피가 얘기한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과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다시 궁금해졌다. 저그를 직접 마주하고, 저글링에게 친구들을 잃고, 그 괴물들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동자를 바라봤던 사람이, 정말 머리 속에서 그 악몽을 지울 수 있을까?

UNN 보도는 정말이지 끔찍했지만 버질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해가 뜬 이후로 그는 계속 화면을 바라보며 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루피가 부엌에 왔을 때에는 이미 포트 하나가 거의 비고 말았다.

"그걸 왜 보고 있어요, 버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 하잖아? 행성 도약선도 알아봐야 하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자기."

화면에서는 그 전쟁을 담은 장면이 보도되고 있었다. 마천루에 추락하는 전투 순양함 주위에서, 수많은 뮤탈리스크들이 불타는 선체에 썰기 벌레를 뱉었다. 스크린 아래에는 온갖 자막이 오고 갔지만 긍정적인 것은 없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신들, 공격받고 있는 행성들, 사상자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나." 루피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침이라 머리도 부시시하고 마스크라는 번져있었지만, 그녀는 예쁘고 조신한 여자였다. "끔찍해요."

"그거 하나는 맞아."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점심 때면 신분증이 준비될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서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계셔. 정부에서 그렇게 고위 직책에 계신 분께는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딸이랑 미래의 사위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인 그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비명을 내뿔으며 거리를 뛰어다니던 기자가 촬영 로봇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런 제기랄." 버질은 놈들이 모퉁이를 돌아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놈들은 기자와 촬영 로봇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저글링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사방을 할퀴어대는 긴 발톱과 좁은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갑피,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놈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더욱 가까이.

화면은 급하게 바뀌어 UNN의 가장 유명한 앵커 도니 버밀리언을 비추었다. 저글링들이 촬영 로봇의 카메라를 뒤덮기 직전이었다. 눈 앞에서 자신의 동료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며 도니는 창백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저 사람 설마...?"

"맞아." 버질은 그녀가 뻘한 질문을 묻기 전에 말을 막았다. "아버님께 전화했어?"

"으..응." 그렇게 대답하며 그녀는 부엌을 나섰다.

버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거리가 미어터질 정도로 우글거리는 저글링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예전에 그 좁은 참호에서의 기억이 생각났다. 깊은 숨을 들이 쉬고 내쉬 이후, 그는 눈을 감았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저글링들이 알비를 죽인 건 아스테리아의 긴 그림자 협곡, 황금빛 석양이 유명한 아름다운 곳에서였다.

알비는 재사회화 과정을 거친 사람으로 큰 덩치에 어울리게 멍청한 남자였다. 기억을 조작 당한 사람이 으레 그렇듯, 그도 항상 바보스러울 정도로 천진한 웃음을 짓고 다녔다. 하지만 버질, 버치, 데이브 등 로분대의 다른 누구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재사회화된 인간치고 알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는 탁월한 군인이었고 그에 못지 않게 역세게 운이 좋았다. 다른 재사회화인처럼 알비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초기 공습을 감행하는 저그의 무리를 향해 몸을 던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4년 동안 연합과 자치령을 거치며 최전방에서 펼쳐진 그 수많은 전투에서 언제나 살아남았다. 피고름으로 범벅이 된 CMC 전투복을 두른 채 그 바보 같은 웃음을 띠면서.

한가한 시간에 알비는 본 대륙에 있는 할시온의 변방에서 보낸 유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란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 밑에 무성한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언덕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언제나 자신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며대는 강아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느지막한 오후, 반얀 나무 아래에 펼쳐진 그늘에서 자신의 얼굴을 핥는 강아지들의 따스함이 좋았다고 했다. 참으로 이상적인 어린 시절이었고, 그는 그 시절이 그리다고 한다. 그런 평화로운 순간을 다른 이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는 지금도 저그와 프로토스, 그리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물론 그 기억들은 거짓이다. 노리스 제 4 행성의 재사회화실에서 인공적으로 주입된 기억일 뿐이다. 로 분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다. 다른 재사회화된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대에 있는 그 누구도 착한 알비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의 과거가 거짓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바커스 위성으로 휴양을 갔을 때, 캣 하우스 바에서 알파 편대에 있는 병사 하나가 우모잔 토종 술을 너무 많이 들이켰는지 알비의 기억이 가짜라고 떠들어댔다. 곧바로 버질이 녀석의 배에 주먹을 한 방 먹였고, 바는 해병들의 난투 때문에 난장판이 되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버질은 알비가 자신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원했다. 날마다 전장에서 공포스러운 광경을 마주하다가 한 번씩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그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수는 없으리라.

케인과 알비가 네포르 제 2 행성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알비를 본 어느 여자가 갑작스레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그를 가리켰다. "그 살인귀! 세상에, 프라이드워터의 살인귀가 나타났어요! 저 사람을 막아요! 누구 좀 도와 주세요!" 행성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녀를 즉각 데려갔지만, 케인이나 알비는 그녀가 겁에 질린 이유를 알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케인은 그 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전방에 배치된 알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케인은 재사회화된 해병들의 과거는 모르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덕에서 강아지들과 보낸 행복한 나날을 읊어대던 알비는 사실 "프라이드워터의 살인귀"로, 수도의 빈민가에서 10 년이 넘게 계속된 수많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이다. 그 살인귀는 피해자들을 고문하며 비명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고, 그래서 피해자를 며칠 동안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고 한다. 첨부된 사진들은 모두 끔찍한 것들뿐이었고, 케인은 그제서야 전장에서 알비의 이면에 드러난 잔혹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도 알비는 조그마한 강아지들의 베이지 색 털이나 갓 자란 이빨들, 그리고 피부에 닿는 축축한 코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케인은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글링들이 알비를 덮쳤을 때, 그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두터운 보라색 점막에 갇혀있었다. 로 분대는 공성 전차와 골리앗의 후방 지원을 받으며 화염방사병 분대와 함께 긴 그림자 협곡으로 진입했었다.

케인이 말하기를 저그를 "싹 쓸어버리려고" 간 것이라 한다. 놈들은 협곡 깊숙이 있는 군락지까지 후퇴했다. 아스테리아에 군락에 있는 한 저그는 끝없이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습격은 대성공이었다. 재가 되어버린 히드라리스크의 시체가 점막에 파묻혔고 산란못에서는 죽은 애벌레들이 툭툭 떨어졌다. 부화장과 다른 구조물들은 원생질의 점액을 뿜으며 으스스리고 있었다.

공성 전차의 천둥과도 같은 포격 소리가 알비의 CMC 전투복을 뒤흔들었다. 언제나 돌격대의 최전방에서 전투에 임했던 그는 군락지의 심장부로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 저그는 대부분 골리앗의 자동포 세례에 온몸이 찢겨 이미 전멸한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고 판단한 알비는 가우스 소총을 든 팔을 잠시 내리며 자신과 전우들이 일구어낸 학살의 현장을 한껏 만끽했다. 테란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저그 구조물이었던 생체 물질들은 모두 갈기갈기 조각나 뒤엉켜있었고, 아직도 맥박 치는 힘줄은 뒤틀려 나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공기를 지면에 분사했다. 압도적인 승리에 알비는 벅차오는 자부심을 느꼈다.

돌연 저글링들이 주위에 있는 산란못에서 불쑥 솟아나왔다. 광기에 찬 기괴한 비명은 끔찍한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알비는 놈들을 보지 못했다. 아마 그 누구도 보지 못했으리라. 협곡의 명물인 황금빛 석양이 지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세피아 톤으로 바꾸었고, 점막 위로 긴 그림자가 지면서 어둠을 몰고 왔다. 운 좋은 알비는 아마 그 순간 고향을 떠올렸을 것이다. 눈부신 빛 속에 반짝이던 먼지 입자는 조작된 과거에서 본 봄날의 나뭇잎을 연상케 했을 테니.

점막에 머리가 박힐 때까지 그는 무엇이 자신을 덮쳤는지 몰랐다. 알비 위로 쏟아져 내린 수많은 저글링들은 마치 야생 동물들처럼 그를 무참히 찢고 할퀴고 자르고 찢었다. 놈들은 제각각 희생자의 시체에 발톱을 박아 넣을 수 있도록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전투가 끝났을 때, 프라이드워터의 살인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있었다. 단지 보랏빛 점막 위에 흩뿌려진 검붉은 자국과, 전우들의 머리 속에 각인된 잊지 못할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농사를 짓는 건 어때요. 샤일로엔 정말 괜찮은 농경 프로그램이 많아요." 라벤더 색 블라우스를 짐가방에 챙기면서 루피가 말했다.

"농부가 되자고?"

"네, 뭐 어때요?" 그녀의 웃음 소리엔 즐거움이 가득했다. "괜찮은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버질에 옷장에서 티셔츠 한 장을 꺼냈다. 루피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셔츠에서 옷걸이를 빼낸 그는 가방에 옷을 집어넣은 후 옷걸이는 옆으로 던져두었다.

"맞죠?"

흥터투성이인 몸과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버질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해준 멋진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농사도 재밌을 것 같아... 솔직한 일이니까... 그럼 당신은 농부의 아내가 되는 건가?"

"물론이죠. 생각만 해봐요, 버질. 넓은 토지, 우리가 직접 재배하는 음식. 우리 아이들... 물론, 아이를 낳게 되면 애기지만... 개들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그 땅을 소유하게 되겠죠."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크레딧에 여유가 있을까?"

"샤일로로는 물가가 싸거든요."

"그렇겠지. 왜 그럴 것 같아?" 질문이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버질? 난... 난 당신을 도우려는 것 뿐인데... 정말이라고요."

그는 루피를 향해 걸어가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루피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버질의 팔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잘 들어, 자기. 내가 농사꾼 남편이 되어 줄게. 그리고 당신이 계속 얘기하던 아이들도 낳고, 이웃들 이름도 모두 외우면서 소박한 삶을 살 테니까."

"저글링이나... 로 분대에 대한 이야기도 영영 안하고요?"

버질은 루피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 이야기는 왜 또 꺼내는 거야? 로 분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루."

지난 1 년동안 그토록 가까워진 두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그들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도저히 그녀는 버질이 겪은 과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게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놔둘 셈인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버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루피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다시 지으며 말했다. "난 농부의 아내가 될 거예요."

버질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심이야."

"아! 가봐야겠네요. 신분증이 준비됐을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옷장 다 비우고 짐 싸뒤요."

버질은 그녀를 놓아주고 옷장으로 향했다. 불을 켜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셔츠 더미를 치웠다. 그 밑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가 있었다.

"그건 그냥 두고 가요, 버질."

"알아."

"안에 있는 것도 치워버려요, 알겠어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만한 단서는 모두 없애야 해요. 아빠 말씀 들었잖아요."

"알아."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해요."

"쉽진 않지."

그녀가 나간 후에 버질은 상자를 열었다. 코를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열어보는 것이었다. 한때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던 훈장들도 이제 먼지만 쌓여갔다. 말라 비틀어진 담배, 극초음파 썰기탄, 이름서의 불법 전화기 중 하나. 갑자기 버질의 손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잡혔다. 처음에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다. *잠깐!* 물론, 점막 일 리가 없다. 서서히 버질은 그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데이브." 자신이 찾은 물건을 꺼내며 버질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반쯤 쓴 푸른색 왁스였다... 추진기 서핑보드용 왁스. 버질은 왁스를 집어 들어 그 냄새를 깊게 들이켰다. 진하고 고소한 향은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저글링들이 데이브를 죽인 건 그의 침대 위에서였다. 밤새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즐겼던 그날 밤. 때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별명이 "거대한 파도"였던 데이브는 미라나 행성의 산토리 섬 출신이었다. 그는 '괴성의 6 인방'이라는 추진기 서핑 동호회의 일원이었는데, 이들은 산토리의 해변에 이따금씩 들이닥치는 수십 미터 높이의 파도들을 타는 걸 즐겼다. 섬에 있는 수력발전소는 이 엄청난 파도들을 이용해 미라나 전역에 전력을 공급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초자연적 현상은 미라나의 주위를 공전하는 3 개의 달이 만들어내는 중력 때문이라고 했다. 가히 자연의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극악의 확률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괴성의 6 인방은 행성의 변덕스러운 계절 날씨를 추적하여 겨울에 산토리 섬으로 집결한다. 그 때가 되면 30 에서 60 미터에 달하는 파도가 심해에서 나온 괴수처럼 솟아오른다.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은 태양계 곳곳에서 온 추진기 서퍼들로 북적거린다. 물론 병원이랑 영안실도 어설프게 파도를 타려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다. 그런 사람 한 명 때문에 데이브는 해병대로 오게 되었다.

"그 어쭙잖은 놈들 아니었으면 댁들과 지낼 일을 없었을 거라는 것만 알아두쇼." 버질이나 버치, 혹은 로분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데이브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내가 성격이 좀 많이 화끈하거든."

자치령 해병대는 코프룰루 전역의 교도소에서 활발하게 신병을 영입한다. 그 명단에 데이브가 있었고, 그의 성격은 말 그대로 화끈했다. 메소드 바는 해저 6 킬로미터에 있는 잘 나가는 술집으로, 온 행성에서 온 추진기 서퍼들이 북적거리는 장소이다. "거대한 파도" 데이브는 그곳에 있는 산토리 아가씨들에게 지나치게 "들이대는" 몇몇 관광객들이랑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난 말 그대로 백마 탄 왕자였다고, 형씨... 그 놈들에게 다가가서 산토리 토박이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어."

확실히 그는 뭔가 보여줬다. 단지 너무 많이 보여줬을 뿐. 술병이 몇 개 깨지고 난 후, 바 여기저기는 피로 얼룩졌고, 긴급 출동한 의무관이 사태를 수습했다. 그 당시만 해도 데이브는 긴 레게머리에 산토리산 장신구를 주렁주렁 걸친 깡마른 추진기 서퍼였고, 자치령 교도소에 있는 인간들은 그를 보고 "신선한 고기"라고 했다. 데이브에게 징역 선고가 내려진 후, 성인 남자 몇 명 정도는 병원 신세를 지게 할 수 있는 그의 성격이 마음에 든 자치령 징집관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멧스크 황제에게 10 년간 충성을 다하든가, 40 년 동안 교도소에서 중노동을 하거나. 데이브는 이렇게 대답했다.

"입대하면 머리는 안 잘라도 되는 거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기른 머리와 작별한 데이브는 신병 훈련소로 보내졌다. 전투 자극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몇 차례 처방 받은 그는 바로 종족 전쟁에 투입되어 최전선에 배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50 파운드의 근육이 붙었으며, 로 분대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도 덤으로 얻었다. 범죄자였던 해병들에게는 휴가가 없다. 그래서 스코티 볼저 위스키와 도박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언제나 파도를 타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집채만한 진회색빛 파도를 가르며 서핑보드의 이온 추진기에 실려 더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던 그 때, 그토록 아끼던 레게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던 때. 그 당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데이브는 스노그 씨의 추진기 왁스를 관물대에 넣어두고 비번일 때마다 그 냄새를 한껏 들이켰다. 버질이나 버치, 혹은 다른 대원들이 공상 떨지 말라고 놀리든 말든 말이다. 그는 믿었다. 10 년만 목숨을 부지하며 버티면 된다. 어차피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면 다시 산토리의 겨울 파도를 탈 수 있으리라.

탐지탑이 오작동한 사이, 저글링들은 병영에서 데이브를 덮쳤고, 몇 마리는 세티 기지까지 들이닥쳤다. 완전히 골아 떨어진 데이브는 병영에서 경보가 울려대고 극초음파 탄환이 굉음을 내는 중에도 잠에서 깨지 않았다. 괴물들이 안전문을 난도질하고 병영으로 난입했을 때도 그는 깨어나지 못했다. 한 놈이 자신을 타고 앉아 육중한 무게로 침대를 짓눌렀을 때,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잠에서 깬 그는 의식이 혼미했다. 데이브는 눈 앞에서 죽음 그 자체인 존재를 바라보았다. 저글링은 이빨을 드러내며 체셔 고양이와도 같은 웃음을 지었다. 큼지막한 발톱이 자신을 향하는 순간에 정신을 차린 그는 몸이 찢어발겨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저글링들은 계속해서 발톱을 데이브의 몸에 꽂았고, 그의 배에서는 예전에 자신이 길렀던 레게머리와도 같은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

버질과 버치는 데이브를 깔고 앉은 저글링을 쏘 죽였다. 그게 그나마 그들이 해줄 수 있던 전부였다.

버질은 자신의 발 밑에 내려놓은 두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농부로서, 아버지로서, 아니면 둘 다. 다른 물건들은 다 버렸다. 작은 아파트에 홀로 서있던 버질은 고요함 때문에 귀가 먹을 것 같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저글링이나 히드라리스크, 혹은 뮤탈리스크가 떠올랐고 학살과 죽음의 소식을 전하던 뉴스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중에서 저글링들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다. 항상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돌진하던 놈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문을 열어 들어왔을 때 버질은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루피의 눈에서는 투명한 핏줄과도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버질은 그녀가 셔츠 소매로 코를 훔치는 모습을 보며 루피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어, 루. 괜찮아?"

"그냥 작별 인사하는 게 힘들었을 뿐이에요... 정말 힘드네요." 자리에서 일어난 버질은 그녀를 감싸 안았고, 루피는 미소 지었다. "좀 덜 소란스러워지면 아빠가 한 번 들르겠대요. 일이 년이면 되겠죠. 가짜 신분으로 오실 거래요. 아빠를... 아빠를 다시 볼 수 있겠죠."

"ID 는 가져왔어?"

그의 품을 밀어낸 루피는 고개를 고덕이며 쓸데없이 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고서는 샹일로에서 쓸 두 장의 홀로카드 디지털 ID 를 꺼내어 그에게 한 장을 건네었다. 버질이 작은 버튼을 하나 누르자 얇은 카드에서 홀로그램이 떠올랐다. 거기에 뜬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이나 신상 정보는 달랐다. 3 차원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옆에는 신상 정보가 계속해서 출력되었다. 루피는 홀로그램 건너편에서 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버질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데릭 데이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무슨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 같은데."

"뭐, 전 죠시 토마스예요... 안 예쁜 건 마찬가지죠... 거기다 제 전공은 원생질학이네요. 하필이면." 루피가 자신의 ID 카드를 누르자 그녀의 머리 모양을 한 홀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제가 탈 수송선은 한 시간 뒤에 출발해요. 당신은 두 시간 뒤고요. 그래야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수송선이 샹일로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곳에서 만나면 될 거예요... 우주공항이나 그런 곳에서요... 꼭 처음 만난 것처럼."

"여기서 나간 이후로 온갖 연기를 다 해야겠네."

"그렇겠죠... 저는 가야겠네요, 버질..." 그녀의 활기찬 웃음이 돌아왔다. "아니, 데릭."

"이리와, 죠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버질은 루피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 알지?"

"물론이죠." 그리고 그녀는 버질에게 입을 맞추었다. 길고 오랜 키스. 둘이 서로 같이 있다는 것, 서로 가깝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버질을 놓아주었다. "당신은 수송선 3801 호를 타면 돼요. 늦지 말고요! 저그의 공격 때문에 수속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난 시체야." 그가 씩 웃었다.

"별말씀을." 그녀도 웃었다. "샹일로에서 봐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둘만의 작은 집, 그들의 옛 삶을 남겨두고서.

자리에 다시 앉은 버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 시간 동안 지저분한 벽을 바라보며,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 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무언가 자신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잊어버린 것이 있었다. 가방을 놓은 그는 아파트를 다시 둘러보았다. 이제 텅 비어버린 아파트. 자신과 루피의 추억이 담겨있던 광경이 더는 없었다. 그저 칙칙하고 우중충한 모습일 뿐이었다.

떠나기 전에 버질은 아파트를 한 번 돌면서 잊은 게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보았다.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는 저글링 이빨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를 집어 든 버질은 톱니 모양의 표면에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너무 날카로워서, 손가락이 베이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피가 팔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서야, 상처가 난 것을 깨달았다.

저글링들이 버치를 죽인 건 우로나 시그마의 테란 기지에서였다. 기지가 저글링들에게 휩쓸리던 때, 구조선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늘 그렇듯이.

버치는 한때 샤일로의 상급 학교에서 데몰리션, 즉 자동차 파괴 경기의 스타였고, 기름때에 절어 살던 자동차광이었다. 데몰리션은 무척 잔인한 경기였다. 부모들은 항상 학교에서 이 종목을 금지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옛 지구에서도 열렸었지만, 데몰리션 선수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를 "박살"냈다. 불안정한 바위투성이 자갈밭에서, 시속 190 킬로미터로 달리는 차량을 몰고 누가 더 강한지 겨루는 시합이었다. 가장 많은 상대를 박살내고 살아남는 차량이 승리했다. 매년 수많은 젊은 남녀가 심각한 화상, 골절, 타박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 버치는 최고였다. 모두들 인정했다. 그는 오직 데몰리션 시합을 위해서 살았다. 학교 밖에서도 자신이 직접 만든 엔진만 하루 종일 똑딱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온통 경기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상급 학교에서는 시합당 파괴한 차량 수의 최고 기록 보유자였으며, 단 한 번도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다. 한때, 그는 이 지역의 전설이었다.

그가 졸업을 하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그는 상급 학교 시절의 명성도, 찬사도 모두 잃어버렸고,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느낌도 잊어버렸다. 딱히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두 번째 특기를 살려 정비공이 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수송선, 시체매 이륜차를 주무르며 2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기억하던 치어리더들도 모두 다른 행성이나 삶을 향해 떠나 버린 후였다. 쉬는 날 학교를 찾아가 연습을 하려 했지만,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후배들이 그를 만만히 보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을 뒤흔들었던 그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흐릿한 기억으로 바래져만 갔다.

지하 세계의 데몰리션 리그는 범죄 조직이 운영했다.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 리그에서 시합한다는 건, 이리저리 멋대로 끌려 다니다가 결국 재정적으로도 파산하고, 언젠가 불명예를 안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모두들 알았다. 버치는 분명히 아드레날린이 분출하는 느낌과 엔진의 울부짖는 소리, 싸구려 좌석의 불편한 진동, 상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동안 주위가 흐릿해지며 심장 박동이 하늘 높이 치솟는 일을 그리워하긴 했다. 그래도 자신의 숨씨를 지하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맡기고, 때때로 수치스럽게 고의적인 패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잘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그 단 하나의 특기를 모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드레날린의 분출은 그리웠다. 열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던 순간이 그리웠고, 언제 어디서 지옥도가 펼쳐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중력만으로 위태로운 파멸의 끈을 붙잡고 버티던 때가 그리웠다. 광기의 회오리 속에서 발휘했던 그런 집중력만이 그를 살아 있게 했다. 그게 없다면 그는 시체이자 그저 살아 있기만 한 무의미한 존재,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 뿐이었다. 이때 그를 사로잡은 건 자치령 해병대의 홀로그램 광고였다. 신소재 강철 방어구로 몸을 감싼 해병들이 가우스 기관총을 난사하는 영상 위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멍스크 황제의 목소리가 흘렀다. 샤일로로 떠나 해병대에 입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우주를 위협하는 존재에 맞서 싸워보고 싶었다.

며칠 뒤, 그는 투락시스 II 행성의 신병 훈련소에서 구보를 했다. 과거 경력을 생각해 보면 시체매나 공성 전차 조종사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해병대에 그런 조종사는 이미 많았다. 필요한 건 최전선의 해병, 보병, 즉 총알받이었다.

버질 케인과 버치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다. 케인에게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충실한 동반자가 생겼고, 버치는 데몰리션 선수 시절 이후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겼다. 둘은 스코티 볼저 술병을 끼고 밤 늦게까지, 전투를 통해 얻은 남자들끼리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케인은 자기보다 어린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여자는 평생 만날 수 없을 거라고, 그는 뼈 속까지 해병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싫어할 거라는 평소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버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둘 다 그 말이 일리가 있음을 알았다. 버치는 케인에게, 자기는 상급 학교 시절과 같은 성취감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그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저글링들이 버치를 죽였을 때, 기지는 이미 저그에게 점령된 상태였다. 공중에서 포격해 온 뮤탈리스크들 때문에 건물은 대부분 불길에 휩싸였다. 버질과 버치는 CMC 전투복이 허용하는 한 가장 빠르게

집결지를 향해 달렸다. 사령부에서는 이들을 구조할 수송선을 보냈다고 말했다. 물론, 사령부는 항상 그런 말을 했다.

"빌어먹을 구조선이 어디 있는 거야?!" 바로 옆에 저그의 썰기 벌레가 폭발하듯 내리꽂히는 모습을 보며, 버질은 통신기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응답이 없어." 버치가 말하고, 뒤로 돌아 무작위로 총을 발사했다. "신이여." 깜짝 놀란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전 우주에서 이보다 더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는 광경은 없었다. 저글링들은 마치 해일처럼 기지를 뒤덮었다. 압도적인 거대한 부대였다. 조용한 갈색과 보라색의 손톱, 발톱, 이빨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바다였다. 맹목적으로 그들을 노리는 괴물들의 군단이었다.

버치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사격 중지!" 버질이 소리쳤다. "계속 움직여, 병사. 넌 지금 적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번은 우리 패배야. 어서 가! 가라고!"

"젠장, 병장님. 저 개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움직여!"

"뭐하러요? 구조대도 우릴 버렸습니다. 지평선까지 수송선이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잖습니까. 여기가 우리 무덤입니다."

"명령이다, 버치... 제길, 아니, 그냥 날 위해 도망가 줘. 계급 때문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그 말이면 충분했다. 버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사격을 멈추고 달렸다.

잠시 후, 마치 붉은 희망의 등대처럼, 하늘에 두 대의 수송선이 나타났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움직여!"

곧 뮤탈리스크 한 마리가 눈치를 채고 테란 함선을 뒤쫓기 시작했다. 두 대의 수송선이 서로 갈라졌다. 한 대가 저그를 유인하는 사이, 다른 한 대가 추격을 벗어날 생각이었다. 괴물이 한 대를 쫓기 시작하자, 나머지 수송선 한 대가 호를 그리며 집결지로 다가왔다. 버질과 버치가 열띠게 두 팔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수송선 입구가 덜컥 열리고, 여성 조종사가 다급히 외쳤다. "어서 타요!"

두 해병이 함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휘파람 소리 같은 비명이 하늘을 갈랐다. 저그는 아니었다. 또 한 대의 수송선이 추락하고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채 연기를 내뿜으며, 맹렬히 회전하는 비행선이 그들을 향해 떨어져 내렸다. 둘을 기다리던 수송선도 순간적으로 날아올랐다. 폭발이 일어나면 허둥대며 달아나는 버질과 버치까지 휘말려 버릴 터였다.

과아아아앙!

추락하던 수송선이 지면을 강타하자, 대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불길이 그 표면을 핏고, 집결지를 가로지르는 뱀처럼 길게 선을 그리며 피어올랐다. 하늘 높이, 남은 수송선 한 대가 선회하며 버질과 버치를 구출할 적당한 지점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둘은 들었다. 무시무시한 숫자가 모인 탓에 커다랗게 증폭된 그 끔찍한 지저귀 소리. 수백, 아니, 어쩌면 수천 마리 저글링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도망쳐요, 병장님... 젠장, 버질, 달아나!"

"버치, 날 따라와! 명령이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물결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강하고 빠르게 방아쇠를 틀어쥐었다. 결국엔 거대한 해일이 해안을 덮치듯 저글링 떼가 그를 뒤덮었고,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듯이 짓밟혔다. 그 중 일부는 그의 몸을 찢어버리기 위해 멈춰 섰지만, 나머지는 수송선을 향해 달리는 버질을 계속 쫓았다.

"뛰어요, 어서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조종사가 소리쳤다.

버질은 그저 달렸다.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뒤를 돌아보라고 비명을 질렀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보라고, 혹시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소리쳤다. 터무니없는 생각임을 알았지만, 그렇게 바랄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수송선에 도착했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륙하는 수송선을 따라 뛰어오른 저글링 한 마리가, 손잡이에 매달린 채 입구가 닫히는 사이 안으로 들어왔다.

"~~썩!~~ 저게 들어오잖아!" 수송선을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게 조종하는 것만도 힘겨운 상황에, 살아 있는 저그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 때문에, 조종사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저글링은 먼 하늘 위에서 봐도 무시무시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는 살아 있는 악몽 그 자체였다.

버질은 함선의 강철 선체에 닿을 때까지 물러섰다. 수송선 안에 들어온 저글링은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든 채 믿기지 않는 속도로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근접 거리에서 버질의 소총이 발사한 음파 쏘기가 저글링의 머리를 끈적한 피와 살점 덩이로 바꿔 놓았다. 그래도 그 생물은 계속 다가와 버질의 가슴에 발톱을 꽂았고, CMC 전투복과 함께 그 안의 살갓을 찢었다. 버질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저글링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이 남아, 발톱을 빼내 다시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했다.

그 순간 그가 움직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인지 의식을 갇아먹어오는 어둠과 싸우는 와중이었다. 두 번째 일격을 위해 발톱이 날아올 때, 버질은 저글링의 남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 이빨을 산산이 조각내고 괴물을 밀쳐냈다. 남은 의지의 힘을 모두 끌어내, 그는 전투복의 힘을 모두 담아 주먹을 날리고 또 날렸다. 결국 그 생물은 움직임을 멈췄고, 그도 옆으로 쓰러졌다. 세상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병원 침상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강화복 장갑에 단단히 붙들린, 깨진 저글링 이빨이었다.

버치는 죽었다. 기지 공격 중에 로 분대 역시 궤멸했다. 남은 건 버질뿐이었다.

버질은 손에는 봉대를 감고, 목에는 저글링 이빨을 걸고 문을 나섰다. 목걸이는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샤일로로 가는 농부 중에서 저글링 이빨 따위를 목에 건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그걸 버려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목걸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뒷안으로 넣었다. 자신만이 그 이빨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게.

거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어딘가로 달려가는 시민들로 들끓었다. 홀로캐스트 영상판이 20 미터 높이에서 우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줬다. 저그 군단이 행성계 전체를 침공하고, 여러 행성을 하나 둘 함락시키는 모습이 영상으로 표현됐다. 버질은 애써 시선을 돌려 앞쪽만을 바라봤다.

모퉁이를 돌아 남녀 여럿이 자치령 신병 모집소 앞에 두 줄로 늘어선 모습이 보였다. 하나는 신병을, 다른 하나는 퇴역 군인을 모집하는 줄이었다. 명실공히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투에 참여하려는 병사들이 줄을 지었다.

버질은 걸음을 재촉했다. 다시 입대하겠다는, 다시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는 수송 차량 정류소에 도착해서, 커츠 우주공항으로 가는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주저 앉았다. 차량이 곧 들어온다는 신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길 건너편 모니터에서 UNN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설적인 사령관 워필드 장군 옆 연단 위에 올라선 멩스크 황제의 모습이 보였다. 화면 아래쪽에는 깜빡거리며 뉴스가 흘렀다. 사망자 숫자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던 버질에게, 저글링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귀를 찌르는 그 소리와 폭발 소리에 총성이 묻혀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감은 눈에 버치와 데이브, 이름서,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을 죽인 저글링 수백 마리가 발톱을 세우고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그의 머리 속에 있었다. 영원히 그럴 것이다. 탈출할 수는 없다. 눈을 번쩍 뜨면서, 그는 이제야 깨달았음을 알았다.

길모퉁이에서 커다랗게 삐걱거리며, 지면에서 1 미터 정도 공중에 뜬 수송 차량이 다가왔다. 엔진의 따듯한 열기가 버질의 얼굴에 와 닿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운전 기사가 문을 열었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버질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전투 지역으로 달려갈 때 시체매에서 들리던 소리 같았다.

"이봐,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을 거야, 아니면 탈 거야?"

버질은 한참 동안 그 남자를 바라봤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아니, 어... 미안합니다. 전 그냥... 쉬고 있었어요."

"어이구, 젠장! 다리가 아프면 정류장 말고 다른 데서 쉬라고! 에이, 망할 녀석!" 차량은 굉음을 내며 멀어져 갔다.

버질은 길을 따라 한 구획을 걸었다.

자치령 신병 모집소에 다가가다가 쓰레기통 옆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위조된 전자 ID 를 꺼냈다. 그건 저글링과 전투에게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삶으로 가는 열쇠였다. 루피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둘은 샤일로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예쁜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둘을 따라 달렸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음악 같았다.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삶의 모습이었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비극이 다시 시작된 지금, 해병 병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그는 가짜 신분증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옷 아래에서 깨진 저글링 이빨을 꺼내 자랑스럽게 모두의 눈에 보이는 곳에 내놨다. 명예의 휘장, 그가 가장 좋아하는 훈장이었다.

잠시 후, 버질은 자치령 신병 모집소에 줄을 섰다. 저그와 맞서기 위해 다시 돌아온 옛 해병들과 함께였다. 그와 같은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일을 겪고, 그런 경험 이후로는 결코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과 함께였다.

끝